



인간 복제에 관한 천주교·개신교 공동 선언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는

1. 수정과 동시에 인간 생명이 시작되며,
 1.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엄한 목적적 존재이며,
 1. 생명의 시작, 삶, 그리고 죽음 등 생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현재의 생명공학 및 의학연구에 대한 인간 존엄성 훼손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14일 이전 배아 역시 인간 생명체이기에 인간 배아 복제 및 인간 배아 실험은 인간을 수단화하는 반인류적 행위이다.
 1. 인간 개체 복제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신성한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1. 인간 유전자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1. 인간 배아 복제 및 인간 배아 실험을 중단하고 질병 치료의 다른 대체 치료책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1. 인간 배아 복제 및 인간 복제를 금지하고 배아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간 복제 금지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촉구한다.

2001년 5월 23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한국기독교 생명윤리위원회



인권정보자료실
ESh1.5



생명 복제, 현대 인류의 바벨탑!

글 박영대/그림 박흥렬

ESh1.5





떠내면서...

최근 들어 인간 생명 복제에 대한 논란이 여기저기 거둡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이 인간의 불치병을 치료하고, 무병장수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생명 복제가 가져올 엄청난 윤리 문제를 걱정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생명 복제 기술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부리째 뒤엎을 수 있다고 보고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생명 복제 기술에 대해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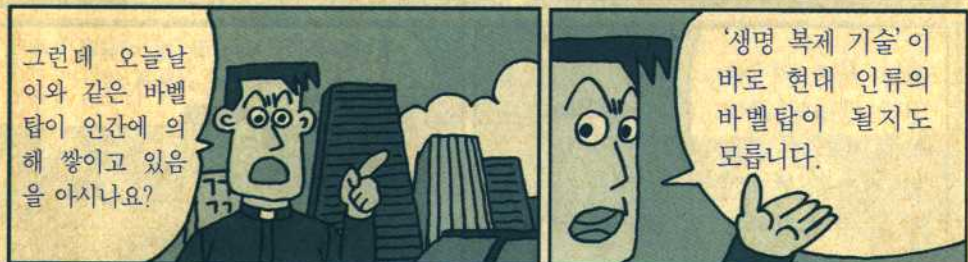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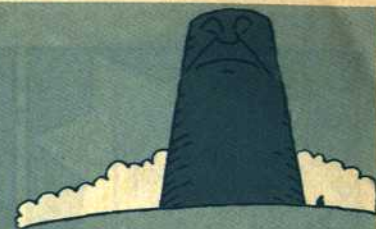
이에 발맞추어 성바오로딸수도회에서는 생명 복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준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 복제의 남용과 오용을 피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면서 이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재능과 창의력이 이룩해 놓은 업적이 때로는 인간 스스로를 지배하고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를 회복 불가능한 파멸로 이끌 수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외치 「인간의 구원자」 중에서)



I. 생명 복제, 현대 인류의 바벨탑!





으하하하!

생명 복제 기술이 현대의 바벨탑
이러니? 당치도 않은 소리!

생명 복제 기술은 인류의 불치병
을 치료하고, 무병장수의 꿈을
실현시켜 줄 과학이라구!



게다가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경
제적 부가 가치를 안겨줄
황금산업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부는 2007년까지
총 17조원을 들여 21세기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거야.



이처럼 생명
공학을 찬성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명공학, 특히 생명 복제가
가져올 엄청난 윤리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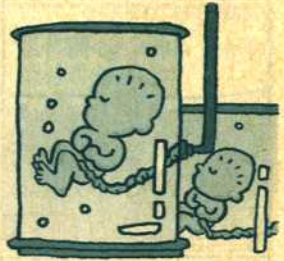


생명 복제 기술은
인간 생명의 존엄
성을 뿌리째 흔드
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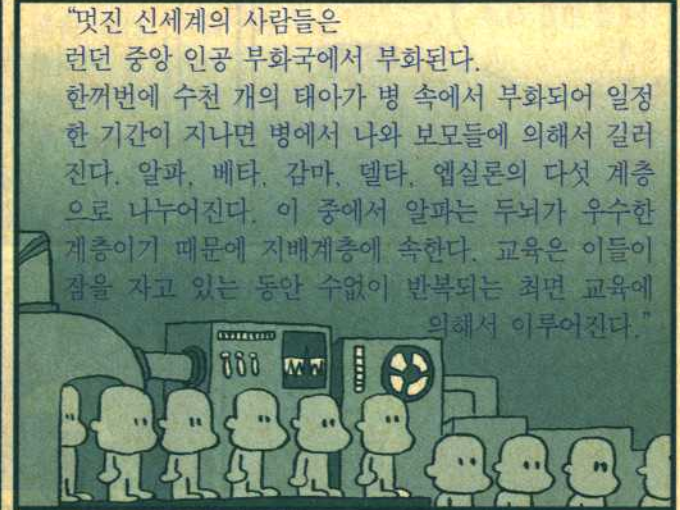


생명 복제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찬반
의견이 분분한지 알아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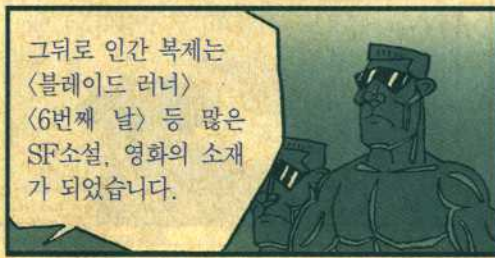
II. 인간 복제, 더이상 공상 과학 이야기만은 아니다



영국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
계>란 책은 인류의 미
래를 이렇게 그리고 있
습니다.



"멋진 신세계의 사람들은
런던 중앙 인공 부화국에서 부화된다.
한꺼번에 수천 개의 태아가 병 속에서 부화되어 일정
한 기간이 지나면 병에서 나와 부모들에 의해서 길러
진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의 다섯 계층
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알파는 두뇌가 우수한
계층이기 때문에 지배계층에 속한다. 교육은 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수없이 반복되는 최면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뒤로 인간 복제는
<블레이드 러너>
<6번째 날> 등 많은
SF소설, 영화의 소재
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설,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인간 복제가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요.



어제 영국 BBC 방송은 유전자 변
형 어린이 30명이 태어났으며, 15
명은 미국의 모 연구소 실험 프로
그램의 결과로



태어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01년 5월 5일 MBC 9시 뉴스테
스크 보도)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볼까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워요. 그건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이처럼 인간 복제 문제는



단지 공장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전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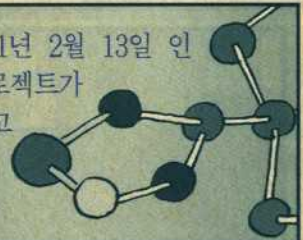
생명 복제 문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봄, 영국 로슬린 연구소가 복제양 돌리를 만들고 나서부터입니다. 그 뒤 영국 정부는



수정 후 14일 이내의 인간 배아 복제는 연구목적에 한해서 허용합니다.



미국은 2001년 2월 13일 인간 저놈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 연구팀이 1998년 송아지 영롱이 복제에 성공하였습니다.



잠깐만!

동물 복제는 해도 괜찮다?

동물 복제는 주로 인간의 이로움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 젖소, 인간에게 이식할 장기를 가진 쥐·돼지의 생산,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생산하는 염소와 같은 특수한 동물들의 유전자 조작 등등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동물 복제는 언제 어디서 유해 돌연변이가 생겨날지 모른다는 점과 인간의 이로움을 위해 동물을 함부로 복제, 변형, 실험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하는 윤리적인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경희대 의료원의 발표는



인간 배아 복제를 시도하여 4세포기까지 성공했다가 중단했습니다.



전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만약 인간 복제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생명 복제 기술이 뛰어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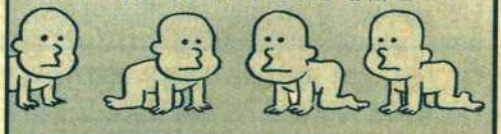
한해 200여 만 건에 이르는 낙태율에서 보듯 생명경시풍조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고



법률적으로 인간 복제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인간 복제 전문회사 '클로나이드사' (신흥종교집단 라엘리언이 1997년 설립)는



1999년에 한국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인간 복제, 애완동물 복제, 세포 냉동 보관을 원하는 이를 전세계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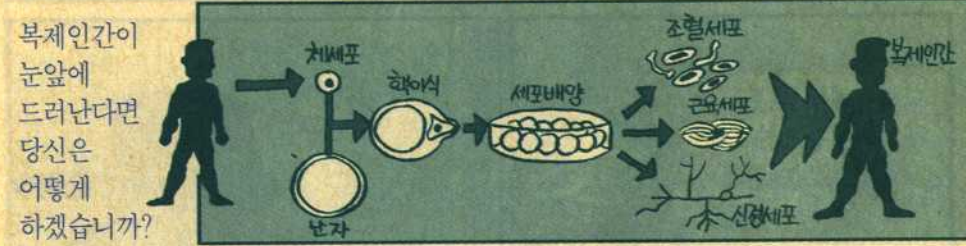


인간 복제는 20만 달러(약 2억 5천만원), 세포 저장 비용은 5만 달러죠.

지금까지 200여 명 이상을 모집했고 그 중에서 한국인이 8명이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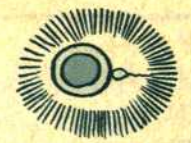
우리는 앞으로 2003년에 최초의 복제인간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소, 돼지 등의 동물 복제에 비해 인간 복제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잠깐만!

인간 배아 복제를 금지하면 과학기술력이 후퇴한다?
 현재 정부는 배아연구와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생명윤리기본법>(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와 기업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14일 이전의 배아 복제와 연구는 허용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전세계 주요국 가운데 영국만이 14일 이전의 배아 복제를 확실하게 허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나라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1년 7월 31일 인간 배아 복제를 전면 금지한다는 법률을 통과시켰구요. 뿐만 아니라 '유럽 생명윤리 협약'(1996년 유럽 30개국 서명) '인간 지능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유네스코, 1996년)을 비롯하여 EU차원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인간 배아 복제 금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배아 복제 허용을 요구하기 이전에 생명윤리의식의 확립, 적절한 법적·제도적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Ⅲ.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중앙일보의 조사에 의하면

유전자 변형 등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거나 맞춤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도 약 70% 정도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약 85%가 생명 복제를 반대하고.

이건 여론의 왜곡이야!

그게 다 몰라서 그래요.

인간 배아의 간세포를 활용하면 인류 건강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질병안녕!

잠깐만!

줄기세포(stem cell: 간세포)란 무엇인가요?
 간세포란 어떤 특정한 유형의 조직으로 아직 분화되지 않은 세포를 말하는데, 이것은 배아만이 아니라 태반조직, 탯줄, 성인세포 등에서도 추출할 수 있다. 로마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탯줄, 성인세포에서 간세포를 추출하여 의료용으로 개발하기 위해 태반은행을 설립하였다.

암,
신경 퇴행성 질환,
당뇨병,
심장병 등 불치병,
난치병을
낫게 할 수 있고



대량의 장기 생산이 가능해
져 인간의 각종 장기나 신체
조직을 바꿀 수 있으며,



또 인간 유전자 정보를
해독하여 사전에 질병 유
전자를 조작해서 무병 장
수의 꿈을 실현시키고



나아가 좋은 유전자
만 골고루 갖춘 맛
춤 인간도 가능하다
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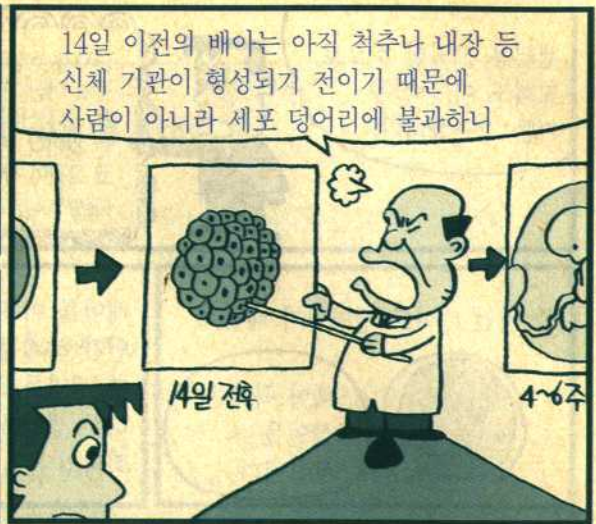
당신은 그게 인류에게 행복한 일
이라고 생각하나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다른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일이 정당한 걸까요?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되면 5-7일 뒤
에 배아(胚兒)가 만들어
지고, 이것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여 우리
처럼 완전한 사람이 됩
니다.



생명은 고귀한 것으로
교회도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다. 그것은 그 자신의 성장을 가지는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인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면 결코 그것이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인공 유산 반대 선언> 12항

즉 인간 배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배아 복제는
살인을
부릅니다.

배아를 이용한
인간 복제는
한 생명을 죽여
다른 생명을 살리는
죄악입니다.



잠깐만!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제6회 생명의 날 담화문>에서

"인간 생명에 대한 진리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것은 결코 인간의 손이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에게서 주어진다. 하느님께서 인간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 부여받은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지켜나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결코 임의적으로 조작하거나 파괴하거나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만 합니다."

잠깐만!

현대 인류의 선악과, 인간 지놈 프로젝트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창세 3,5)



1. 지놈 (Genome)

지놈 (Genome)이란 유전자 (Gene)와 염색체 (Chromosome)의 합성어. '게놈'이라 하기도 함. 인간의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을 DNA라 하고, 지놈이란 DNA를 담고 있는 그릇의 개념으로, 유전 정보 전체를 의미합니다.

2. 지놈 프로젝트 (human Genome Project)

DNA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는 4가지 염기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 인종·성격·체질 등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놈 프로젝트란 바로 30억 개에 이르는 염기의 배열 구조를 판독해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흔히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불로장생의 시대가 도래하고, 서로 다른 생명의 유전자를 합성해 전혀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장담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하느님처럼 창조주가 되는 건가요?

3. 현대 인류의 선악과!

인간 지놈 프로젝트!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었던 선악과의 현대판입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생명 질서가 온전한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듯이, 현대 인류도 현대판 선악과인 지놈 프로젝트 때문에 하느님인 지구의 생명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려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곳으로 만들지는 않을까요?



IV. 인체 상품화의 첫걸음, 생명특허!



보통 특허란 새로운 것을 발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신부님! 나 줘요.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고생에 대한 대가라고나 할까. 그래야 연구할 마음도 생기지.

잠만만!
무분별한 특허 출원.
거대기업에 의한 생명특허 독점 가속화!

그런데 이런 특허제도가 생명공학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H·G·S	7,500개 인간 유전자 7,500개 특허 출원 → 112개 특허 획득
I·P	인간 유전자 6,500개 특허 출원 → 490개 특허 획득
C·G	6,500개의 유전자 단편 및 완전 유전자에 대한 특허 출원
Hyseq Inc.	5,000개 이상의 인간 유전자 특허 출원
Genset	2,500 개의 전장 cDNA 특허출원, 50개 이상의 특허 획득

*미국 생명공학업계 동향에 관한 잡지 'Signals' 2000년 3월 3일자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특허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엔은 1998년 세계 인권 선언 50주년 때

“생명체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보는 생명특허제도란 말이 안 됩니다.

인간 유전자는 우리 공동 유산이자 집단 재산이기 때문에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생명특허를 통해 생명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면

생명공학 기업과 과학자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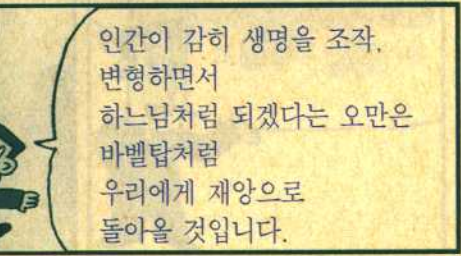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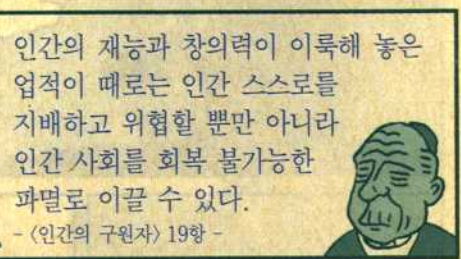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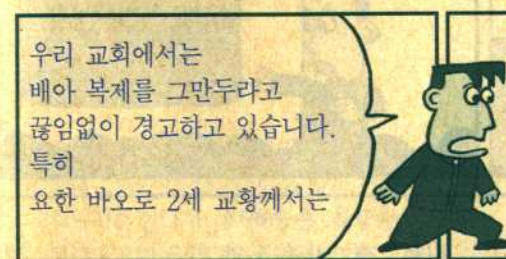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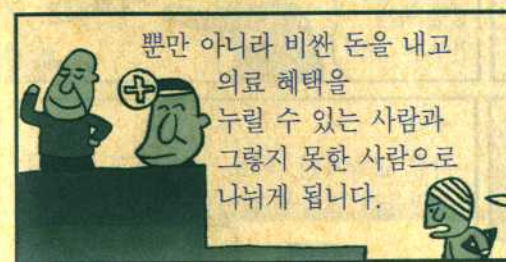
양심과 인류의 공동선을 무시하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생명특허는 생명 해작질과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생명특허가 계속 인정된다면 결국 인간은 일개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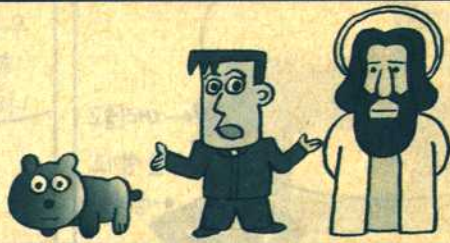
결국 그것은 인체 상품화로 이어집니다.



V. 그럼, 우리는?



그렇다면
하느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인간 배아 복제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변에 알립니다.



둘째,
밀실에서 진행되는
생명 복제 연구 중단을 촉구합니다.

비윤리적인
생명 복제
연구는 그만!



셋째, 부진한 생명윤리기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넷째,
각종 교육기관, 의료, 교회단체 등에서
생명윤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생명 복제의
왜곡된 환상을 깨고



생명을 존중하며,
헌혈, 장기기증 등과 같은
생명을 나누는 정신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잠깐만!

생명 복제와 관련된 기관과 홈페이지.

과학기술부 생명윤리 자문위원회	http://www.kbac.or.kr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http://kabb.ksdn.or.kr
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생명운동 연대	http://my.dreamwiz.com/antigmo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http://cdst.jinbo.net
박명상 박사 홈페이지	http://inha.net/phdlet/
이동익 신부 홈페이지	www.catholic.ac.kr/donglee

바로로맡은 사회홍보수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수도자들입니다.
서적·음반·비디오·인터넷 등
이 시대의 수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